ISSN 2509-2817 KiDRS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 통권 29호, 2023. Vol.8 No.4

공예 디자인 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ional Revitalization Plan Utilizing Craft Design Center Program

주 저 자 : 조완희 (Cho, Wan Hee)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강의전담 조교수
wanycraft@gmail.com

https://doi.org/10.46248/kidrs.2023.4.159

접수일 2023. 12. 10. / 심사완료일 2023. 12. 12. / 게재확정일 2023. 12. 15. / 게제일 2023. 12. 30.
이 연구는 2023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 되었음.

Abstract

The craft design industry refers to tangible and intangible industries and contents that create economic added value by embodying cultural and artistic elements. It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traditional culture of the country and reg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create cultural values and revitalize local communities by utilizing these craft design activities.

Currently, local communities have undergon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due to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rapid growth, and these are expressed as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hanges in social structure, reduction of exchange, and absence of community activities. In particular, after COVID-19, the concept of community has declined, and life centered on social relations is changing.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prior research on the operating system of the Crafts Center, which operates craft design programs, and presents a systematic activation plan focusing on the support direction and operation program. This is significant in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isolated or unstable local members while playing a role in raising awareness of the cultural industry through craft design and expanding the network of local communities.

Keyword

Craft Design Industry(공예 디자인 산업), Regional Community(지역사회), Regional Revitalization(지역 활성화)

요약

공예 디자인 산업은 문화적, 예술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 산업 및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 및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여과되고 발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예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지역사회는 급속한 경제개발과 고도성장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 교류 감소, 커뮤니티 활동 부재 등의 도시환경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공동체라는 개념이 감소하고 사회관계 중심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예 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예 지원센터의 운영체계를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지원방향, 운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공예 디자인을 통한 문화산업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고립되거나 불안정한 지역 구성원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공예 디자인 산업의 활성화 현황

2-1. 공예 디자인 산업의 개념과 현황

2-2. 공예 디자인 프로그램 활성화와 기대효과

3.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활동과 운영체계

3-1. 지역사회 개념과 유형

3-2.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

4. 공예 디자인 프로그램의 사례 분석 및 활용 방안

4-1. 공예 지원센터 프로그램 사례 분석

4-2. 공예 디자인 프로그램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중세 세계적으로 급속한 산업의 발전에 따른 환경 폐해에 문제의 인식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슬로 푸드, 슬로 디자인 등 각 분야에서 느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현상과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불러왔다.[1] 이러한 패스트 산업의 확산으로 인한 환경과 윤리적 문제의식을 공유한 예술 분야 역시 시간의 가치를 부여하는 '느림의 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물질 중심에서 감성 중심으로 가치를 두고 삶의 여유를 즐기려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냈다. 이에 따라 시간이 들더라도 개인의 취향과 가치를 충족시켜 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핸드메이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생활 곳곳에 대량생산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현대사회가 하이테크화되면 될수록 하이터치의 감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2] 현재 4차 산업 시대의 첨단기술과 고도화 속에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추구하는 수공예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예 디자인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창작 활동을 위한 복합 문화 플랫폼이 설립되고 있다.

이러한 시간의 가치를 부여하는 공예 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는 급속한 경제개발과 고도성장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획일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의 확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구조의 변화, 지역사회와의 교류 감소, 커뮤니티 활동 부재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다.

본 연구는 공예 디자인 산업의 현황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 공예센터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예 문화의 인식 개선 및 확산을 돕고, 공예 산업을 증진하며, 지역 문화를 향유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 문화적으로 고립되거나 불안정한 지역 구성원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공예 산업 실태조사를 기초자료로 현재 공예 디자인 산업의 현황과 지원 정책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국내외 공예 디자인 지원센터의 활성화 된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구성 내용을 연구하며, 국제 공예 비엔날레 및 지역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최근 국내 공예디자인 산업은 중장년층이 주요 고객이었던 장인 중심의 명품 공예에서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는 현대적이고 일상적인 공예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3] 이러한 흐름은 많은 젊은 공예가가 시장에 진입하고, 공예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며, 지역 문화 발전을 증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및 고찰하기 위해 공예 디자인 분야의 예술적 문화적 역할과 의미를 분석한다. 또한 현대적 지역 사회의 개념과 확장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현대 지역사회에서는 사용자에 따라 커뮤니티의 개념적인 확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예술 활동을 통한 연계성, 심미성, 확장성, 지속가능성 등의 질적 향상의 가능성을 증진하고 있다.

1) 마유리, 전통장식기법을 적용한 규방공예품의 DIY 패키지 개발, 동양예술, 2019, Vol.43, NO.0, p.89.

2) 최범, 공예를 생각한다. 안그라픽스, 2017, p.23.

3) 박새봄, 정재희, 2030세대가 중시하는 공예의 속성, 산업디자인학연구, 2020, Vol.14, No.2, p.94.

이처럼 지역 사회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과 연계성을 확장하기 위한 공간을 통합하고 교류의 기회를 구축한다. 이에 본고는 공예 디자인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지원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을 방법적 범위로 한정하며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심적으로 연구한다.

2. 공예 디자인 산업의 활성화 현황

2-1. 공예 디자인 산업의 개념과 현황

공예의 정의와 개념은 시대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변화했다. 현대에는 공예의 의미와 가치를 순수미술과 디자인의 경계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4] 공예는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며 예술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순수미술과 차이가 있고, 수공예 생산과 그에 따른 공예가의 숙련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디자인과 다르게 정의한다. 공예는 머리와 손의 합일, 즉 디자인과 제작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공예가의 숙련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공예 제품의 물리적, 시각적 요소가 담고 있는 특유의 수공예적 감성은 요즘 세대에게 신선함을 경험하게 한다. 공예 디자인 제품의 형태, 재질 그리고 장식적 디자인 요소는 현대의 산업 제품이 주지 못하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느끼게 한다. 또한 공예 제품이 지닌 복제할 수 없는 제작 고유의 느낌은 희소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내포한다. 수작업을 가미한 공예 디자인 제품은 애초에 동일한 제품을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예가의 영감과 스토리 그리고 기술이 녹아들어 제품만의 독특한 고유성을 지닌다. 또한 공예 영역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토대로 하므로, 공예 제품의 다채로운 디자인은 제품을 통해 개성과 기호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현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현대 공예 디자인 산업은 이러한 공예의 속성을 토대로 실용성을 바탕에 두고 예술의 자율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21세기가 요구하는 공예의 가치로 친환경적 실천을 위한 지속가능성은 손으로 만든 물건 특유의 인간적 감성의 '하이터치(High Touch)'를 강조한다.

순수미술이 자율적인 데 비하여 공예는 대리 보충적이고, 미술이 시각적 효과를 지향하지만, 공예는 물질적 체험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기술이 관계 지향적인 공예를 가장 완전하게 체현해 준다.[5] 이러한 속성은 미래의 공예 산업이 신기술을 수용하여 변화 발전하더라도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 시대 현대 공예는 디자인, 예술 분야와 영역을 공유하면서 산업적 측면에서는 창조 가치와 사회 가치를 충족시키고,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는 감성과 희소성의 의미를 함유한다.

그러나 한국공예·디자인 문화 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년 공예산업 실태 조사 발표에 의하면 현재 공예 관련 산업은 경쟁력이 낮고, 시장의 수요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위한 지원 산업의 공급과 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공예 디자인 산업 유통의 활성화, 공예 문화의 확산, 시장 창출 등 활성화 체계적인 활성화 대책을 필요로한다.

2-2. 공예 디자인 프로그램 활성화와 기대효과

수공예의 가치와 공예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점차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이 미약하여 공예 디자인 기반 환경 조성과 공예 문화 인식 개선 및 확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속의 공예'를 비전으로 5개 추진 전략과 14대의 핵심과제를 발표했다.[6] 이는 공예 창작 환경 개선과 지역 문화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작가 및 디자이너의 제품 생산 지원부터 창업, 교육, 경영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예 디자인에 필요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하며, 공예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국내 공예지원센터로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 여성 공예센터 등이 있고, 서울 공예박물관에서도 공예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는 공예가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상품 개발, 마케팅 역량 강화, 네트워킹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이다.[7] 이러한 공예 플랫폼은 공예의 창업, 생활화, 지역의 혁신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체계적

4) Ibid., p.96.

5) Glenn Adamson, The Invention of Craft, Bloonsbury, 2013, p.43.

6)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3개년 계획, 2015. P.11

7) 김민지, 지역공예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P.32.

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활동을 운영한다. 이는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활성화를 꾀하는 복합 문화거점으로써 지역 주민과 시민의 문화예술과 교육을 향유한다.[8)]

공예 지원센터는 기관마다 성격이 달라 작가 창작지원에 더 집중되어 있는 기관도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및 공예 트렌드 페어와 같이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메이커스페이스, 박물관, 갤러리, 체험 시설 등의 조성은 지역 내 공방, 판매 시설, 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꾀하고 작가의 교육 지원 및 역량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활동과 운영체계

3-1. 지역사회 개념과 유형

커뮤니티의 의미는 우리말로 '공동체(共同體)'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라틴어 "communis"를 어원으로 한다.[9)] '공동', '함께 나누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어원 자체에 함께 협력,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는 공통된 매개가 성립되는 지역사회로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대감이 갖추어져 있는 인간 집단을 말한다. 이는 지역 사회를 공동의 장소, 소속감, 이해, 문화, 활동에 기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한 단일체로 말할 수 있으며. 동일한 지역 및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지역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주로 공통된 관심사, 종교, 직업 등 유사한 영역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사회적 상호관계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다.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관심과 이해에 대한 사회 감정(community felling)을 공유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사회의 개념은 사회 변화와 함께 역사성을 가지고 변화하여 왔다. 현대사회에서는 온라인 공동체, 네트워크 공동체 등 새로운 지역사회 형태의 플랫폼이 형성되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8) 서울여성공예센터 (2023.08.03.) https://seoulcraftcenter.kr

9) 김재현, 박정윤, 장주연, 최현선, 지역자원과 커뮤니티 개발을 기반으로 한 농산촌 발전 프로세스 도입 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27, No.1, 2015, p.229.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지역 커뮤니티 의미는 '지리적 지역사회(geographic community)'와 '기능적 지역사회(functional community)'로 구분할 수 있다. '지리적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과 조직체의 지리적 분포로 활동 영역이 이루어져 있으며, 역사, 전통, 문화를 공유한다. 이는 공간적 의미의 지역사회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적 특색이나 특상품에 대한 공동의 연대감과 동질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기능적 지역사회'는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기반하며 취미, 직업, 활동 영역 등 기능적으로 공통된 가치와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특히 기능적 지역사회는 종교, 생활 방식, 취미활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유형과 규모가 존재한다.

[표 1] 현대 커뮤니티의 유형

구분	커뮤니티 특성
부분적 커뮤니티	지역사회의 재생산에 관련된 일부 기능만을 목적으로 하며, 부분적 커뮤니티가 복합적으로 재구성됨
네트워크형 커뮤니티	소규모의 지역사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공동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최소한의 생활권을 지닌 현대의 커뮤니티 형태
개방적 커뮤니티	해당 지역의 자립성을 확보하며, 여러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커뮤니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개방적으로 포괄함
공적 커뮤니티	해당 지역사회의 이해만을 추구하며 공동체적 활동을 추구하고 전체 구성원의 권익을 고려함

3-2.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커뮤니티 개발이 강조되면서,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 발전(Community-Based Development, CBD)'의 개념에서보다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조한 개념으로 '커뮤니티 주도에 의한 지역 발전(Community Driven Development, CDD)'이 증진되고 있다.[10)] CDD는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CBD의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율권에 대한 정보 공유 수준의 광의적 개념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이루어진다.

10) 김재현, 박정윤, 장주연, 최현선, Op. cit., p.231.

이러한 커뮤니티 자원 중심의 지역 발전(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 개념은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도 형성하며, 지역 발전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11] 이러한 ABCD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까지 적용하여 지역 경제, 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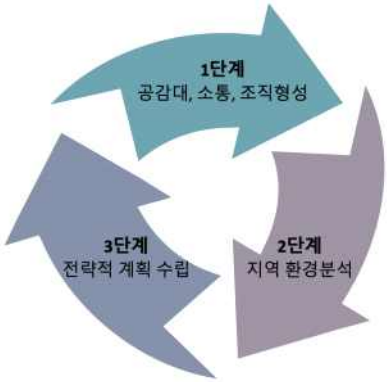
ABCD 접근법은 [그림 1]처럼 3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1단계는 공감대, 소통, 조직형성의 단계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전 구성원이 모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구성원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속감을 증대시키며, 자유로운 소통의 기회를 얻는다.

2단계는 지역 환경 분석 단계로 커뮤니티의 특색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수집 단계로 볼 수 있다. 지역 사회의 환경적 자원과 같은 물리적 자원에서부터, 문화, 역사와 같은 비물리적 자원, 사회적 관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 인적자원이 모두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 지역 문화나 특색을 사회적, 경제적 이익 창출과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의 문화, 예술 분야의 비물리적 자원도 이에 해당한다.

3단계는 커뮤니티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는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의 역량이 강화하고, 사회적 참여를 독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단계에서 공예 지원센터의 역할과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고찰한다. 공예 플랫폼은 창업, 교육, 경영 등 지역 커뮤니티의 혁신을 구축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이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제시함과 동시에 고령인구, 국제결혼 등을 통한 이주로 지역에 고립되거나 불안정한 지역 구성원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커뮤니티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과 연계성을 확장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활용은 온오프라인 공간의 확장과 자유로운 시간의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부합하며, 지역의 상징적 역할뿐만 아니라 확장된 커뮤니티의 규모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한다.

11) Ibid., pp.231-232.



[그림 1] ABCD 접근법 과정

4. 공예 디자인 프로그램의 사례 분석 및 활용 방안

4-1. 공예 지원센터 프로그램 사례 분석

공예 지원센터는 공예 디자인 산업의 중심 역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공예 디자인 관련 산업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창작 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한다. 현재 국내 공예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여성공예센터, 서울공예박물관이 대표적이다.[표 2]

먼저 신당창작아케이드는 2009년에 시작된 프로젝트로 작가 및 디자이너 중심의 창작지원 공간이다. 신당 중앙시장의 상권이 점차 감소하며 비어있는 점포가 많아지자, 점포를 레지던시 공간으로 조성하여 창작공간으로 지원하였다.[그림 2] 또한 작가별 작업실뿐만 아니라 가마, 그라인더, 드릴, 절단기, 3D 프린터기 등과 같이 개인이 구비하기 힘든 다양한 도구와 장비를 설치하여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그림 3] 이 공간은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로 설립되어 공예 디자인 상품을 전시 및 판매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예 체험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공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작가의 스튜디오가 산재된 개별

공방 형태로 이뤄져 있어 공예가와 공방 간의 경쟁을 통한 동반성장 환경이 미흡하다고 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당창작 아케이드와 같은 창작지원 공간에서 공예 기술 및 소재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공예 관련 제품 생산과 유통, 판매 및 교육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 신당창작아케이드 전경

[그림 3] 신당창작아케이드 공동 작업공간

서울시와 여성능력개발원은 공예 분야를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더 아리움'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여성공예센터를 설립했다.[12] 이는 공예를 중심으로 취업 및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허브로서 역할하고,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나 창작지원센터와 차별화된 운영체계 구성을 위해 상품 개발, 마케팅 역량 강화, 네트워킹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문화 체험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다양한 공예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강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여성공예센터에는 공예 전시, 체험 프로그램, 공예 문고 등 다목적 소통 공간인 '공예마당'이 있고[그림 4], '생활창작공간 씨'에서는 다양한 공예 체험을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그림 5] 또한 입주 공예가 간의 협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코워킹 스페이스'와 작가별 창업실이 구성되어 있다.[그림 6] [그림 7] 그뿐만 아니라 전시와 판매를 하는 쇼룸도 구축되어 있어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돕는다.[그림 8]

[그림 4] 서울여성공예센터 다목적 공간 '공예마당'

[그림 5] 서울여성공예센터 체험 공간 '생활창작공간 씨'

입주 작가들은 공예 디자인 작업이 가능한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받고, 작품 제작뿐 아니라 전시, 판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작가나 디자이너의 특성에 맞게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마케팅, 회계, 멘토링 등

12) 서울여성공예센터 (2023.08.03.) https://seoulcraftcenter.kr

의 사업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공예 마켓'이나 '원데이 핸드빌딩 수업' '아트토이 DIY 워크숍' 등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림 6] 서울여성공예센터 코워킹스페이스 및 회의공간

[그림 7] 서울여성공예센터 작가 창업공간

[그림 8] 서울여성공예센터 공연 강의 등 다목적 공간 '천수답계단'

서울공예박물관은 2021년 공예의 역사와 전통 및 현대 공예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축되었으며 공예의 관련된 아카이브를 담고 있다. 이는 예술과 생활을 연결하는 공예의 허브로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역사적 공간이다. 시대와 분야를 넘나드는 공예품과 공예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그림 9]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 기술적, 실용적,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역동적인 플랫폼을 목표로 설립되었다.[13][그림 10]

공예 자체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쓰임을 통해 일상과 교감하는 예술품이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시민들에게 공예에 대한 영감과 교육을 제공하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상의 공간으로 자리한다. 전시, 교육, 연구, 박물관의 기능을 취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 연구실, 강당, 뮤지엄실 등의 공간이 구축되어 있고,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통해 관람객과 소통을 꾀한다.

[그림 9] 서울공예박물관 전통 공예품 소장 및 전시

[그림 10] 서울공예박물관 현대 공예품 소장 및 전시

13) 서울공예박물관 (2023.08.07.) https://craftmuseum.seoul.go.kr

[표 2] 공예 지원센터 사례

기관	운영 방향 및 목적	프로그램
신당창작아케이드	- 창작 공간 지원 - 지역 활성화	- 작가 레지던시 - 시민 체험
서울여성공예센터	- 공예 창업 보육과 지원 - 공예가 지원 - 개방적 공간 기반으로 지역의 새로운 복합 문화 거점	- 작가 레지던시 - 공예 교육 - 전시 지원 - 창업 지원
서울공예박물관	- 공예 역사관련 아카이브 - 전통 및 현대 공예품 소장 - 공예의 허브 역할	- 전시 지원 - 공예 교육 - 정보 센터

위와 같은 공예 지원센터 외에도 청주국제비엔날레나 복지센터 행사를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시민과의 유대감 형성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청주국제비엔날레는 회를 거듭하며 현재는 청주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청주국제비엔날레는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데, 금속, 도자, 목공, 섬유 등 공예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국제 종합 예술 행사로 국내외 공예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현재 비엔날레는 매회 세계 60여 개국, 3천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3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최고 수준의 공예 비엔날레로 성장하였다.[14] 이러한 공예 비엔날레 개최로 침체되어있는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활력소 역할뿐만 아니라 공예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특히 2021년 021년 청주 공예 비엔날레 본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공예가 되기(Becoming a Maker)'를 살펴보면, 14명의 공예 작가가 작품 키트를 제작하고, 키트를 구매한 시민이 홈 튜토리얼 영상을 시청하며 공예품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그림 11]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공예 문화를 향유하고, 공예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공예 작업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는 직접 제작한 공예 작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전과 수공예 작업 과정을 통한 유희적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14개의 공예 키트는 섬유, 금속, 가죽 등 다양한 공예 분야의 주목받는 작가가 직접 개발하였으며, 숙련된 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고유한 조형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기획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예의 '의미 있는 제작' 행위를 통하여 물리적 사물의 조형성, 사용성, 심미성의 의도를 공유하고, 물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인 정신(craftsmanship)의 완성도를 위한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공예가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경험을 통한 성취감과 만족도를 높여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며 개인의 취향과 가치를 충족시켜 준다.

[그림 11] 2021 청주공예비엔날레 '공예가 되기' DIY 키트

시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위와 같은 DIY 키트 개발 외에도 시립 복지관과 전문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진행하는 지역 연계 교육활동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2023년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디자인학과 학생들과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이 일정 기간 공예 교육을 진행하고 공예작품을 만들어 전시하는 지역 연계 교육활동을 진행했다.[그림 13]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에서 학습한 지식을 교육활동과 협업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은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예품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며 만족적 유희성과 작품 제작 과정에서의 실용적 창의성을 계발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세상에 하나뿐인 희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 때는 말이야'라는 이름의 전시를[그림 12] 통해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적 가치와 창조적 가치뿐만 아니라 구성원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소속감 결여, 소외된 계층의 연계성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대중과 예술이 자유롭게 소통할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 예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14)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2023.07.28.) https://www.okcj.org

[그림 12] 노인 공예 교육 전시 '나 때는 말이야'

[그림 13] 지역연계 교육활동 프로그램

4-2. 공예 디자인 프로그램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본고에서 언급한 서울여성공예센터나 신당창작 아케이드와 같은 공예 지원센터의 설립 목표는 공예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예 디자인을 창작의 매개로 주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공예를 중심으로 작가 지원 공간 제공과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지만, 공예 산업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 청책 방향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예 문화산업 지원 내용과 국내외 사례들을 비교하여, 체계적인 '작가지원 프로그램', '시민 참여 프로그램', '공예 시설 네트워크화' 방법을 제시하고 공예 문화산업의 성장에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작가지원 프로그램으로 작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간과 시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같은 공예 전문 정보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 플랫폼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공예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과 융합 상품개발에 대한 작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공예청(American Craft Council)의 사례를 들면, 이들은 공예 혁신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박람회나 전시회를 개최하고, 공예 전문 잡지인 Crafts 지를 발행함으로써 공예 관련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여 공예의 질적 향상을 돕는다. 이러한 공예 작가를 육성하기 위한 공예 정보센터의 구축과 규칙적인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작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역량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관 연계되어 있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이미 운영 중인 개인 작가의 공방, 지역 아트센터, 지역 협회, 교육기관 등의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예 디자인 분야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미 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공간을 일반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예를 생활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프랑스 국립공예협회(INMA, Institut National des Métier d'Art)의 사례를 들면, 공예 관련 도서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과 갤러리를 지역별 운영하며 대중과 작가의 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만들고 있다. 또한 공예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대중의 참여를 끌어낸다. 이러한 노력은 공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예 시설을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으로 박물관, 갤러리, 창작 레지던시 공간, 체험 시설, 도서관 등 다목적 복합문화 공간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전시는 대중에게 공예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촉진하여 공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전시 관람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 공간의 설립으로 공예 산업 판매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인프라 구축 및 강화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국 공예 협회(The Crafts Council)는 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국 내 12개의 공예 갤러리를 설립하여 상설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갤러리 공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갤러리 공간과 공방을 지원 및 활용하여 지역 공예 센터 역할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공예 디자인 주축의 메이커스페이스가 많은 지원을 받아 설립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박물관, 갤러리, 체험 시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 기능을 부가하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뿐만 아니라 작가의 역량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표 3] 공예 문화 산업 활성화 방안

활성화 방안	내용
작가 지원 프로그램	• 정보 및 자료 수집이 가능한 공간 및 자료 제공 • 작가를 대상으로 세미나, 워크숍 진행 • 작가의 창작활동 장려를 위한 재정적 지원
시민 참여 프로그램	• 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 제공 • 지역 공방 및 센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 • 공예 전시 및 교육 지원 • 도서관이나 갤러리 운영을 통해 공예 관련 지식과 정보 제공
공예 시설 네트워크화	• 박물관, 갤러리, 체험 시설 등 복합문화 공간 지원 • 공예 시설 네트워크의 연계로 지역 공예 클러스터 구축 • 공예품 상설 판매 가능 공간 구축

5. 결론

본 연구는 현대 예술 분야 중 공예 분야의 활동 증대와 가치의 확장으로 공예 문화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량 생산품에 비해 자본력이 미약한 공예 디자인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또한 공예 클러스터와 같은 공예 기반 시설 구축 및 공예 공방과 센터 운영을 통한 유통의 활성화, 공예 문화 인식 개선 및 확산을 돕는다. 이러한 지원 방안으로 지역 내 공예 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는 공예 산업의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공예 지원센터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위해 국내 기존 운영 중인 신당창장 아케이드와 서울여성공예센터, 서울공예박물관 및 국외 미국 공예청, 영국 공예협회, 프랑스 국립 공예협회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국내 지역 공예 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찰을 통해 작가 지원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공예시설 네트워크화 방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공예 작가 지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연계와 창의적인 창작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공간의 구축을 통해 지역 문화를 향유하고, 공예의 생활화를 통한 공예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 공예시설 네트워크화로 공예 관련 지식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기관을 운영하고, 박물관, 갤러리, 체험 시설, 테마 공원 등을 조성하여 복합 문화공간의 구성을 제시한다. 이는 지역 활성화를 이루고 나아가 공예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지역 공예 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하는 공예 지원센터의 운영 체계와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공예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한 부가적인 가치 창출의 효과와 공예 산업의 해외 진출 및 유통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예 시장의 기반 구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최범, 공예를 생각한다. 안그라픽스, 2017.
2. Glenn Adamson, The Invention of Craft, Bloonsbury, 2013.
3. 김은성, 수공예 프로그램이 노인 정서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2020, Vol.14, No.2.
4. 김재현, 박정윤, 장주연, 최현선, 지역자원과 커뮤니티 개발을 기반으로 한 농산촌 발전 프로세스 도입 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5, Vol.27, No.1.
5. 마유리, 전통장식기법을 적용한 규방공예품의 DIY 패키지 개발, 동양예술, 2019, Vol.43, NO.0.
6. 박새봄, 정재희, 2030세대가 중시하는 공예의 속성, 산업디자인학연구, 2020, Vol.14, No.2.

7. 김민지, 지역공예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8.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3개년 계획, 2015.
9. 문화체육관광부, 공예산업 실태조사, 2015
10.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2017.
11. www.craftcouncil.org
12. www.craftmuseum.seoul.go.kr
13. www.craftscouncil.org.uk
14. www.institut-metiersdart.org
15. www.okcj.org
16. www.seoulcraftcenter.kr